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장·단점 및 정책적 시사점

한 석 수 | 공주대학교 객원 교수

미국의 주간 저널인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은 지난 2005년 2월,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미국 대학들의 입학허가 제도 장·단점 및 변화 방향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학학장, 대학 등록업무 보직자, 대학위원회 (College Board) 회장, 교육관련 연구소 선임연구원, 언론인,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미국 제도에 대한 분석과 제안은 2008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 이후 바람직한 정착방안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에서는 저널에 보도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 학생선발제도의 발전적 방향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장점 및 단점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Robert Reich는 미국제도의 장점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수민족 지원학생들에 대한 대학들의 접근 노력을 꼽고 있다. 즉, 장래성이 있는 지원자 발굴 및 대학진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입학기준적용 등이 장점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그는 대학등록금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오르며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¹⁾ 25%로 추정되는 대학 진학이 가능한 학점 및 시험성적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대학에서 부유하거나 영향력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선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런 것을 고려한 입학허가 (development admits)는 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늘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학들이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SAT 성적

1)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학비보조인 펠 그란트(Pell Grants)로 25년 전에는 4년제 대학 진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80%까지 충당 가능했는데, 현재는 약 40%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 높지만 실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도 않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지원을 늘리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Rober Reich는 『U.S News & World Report』 등에서 대학의 순위를 매길 때 신입생들의 경제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즉, 평균 이하 가계소득 출신 학생비율을 점수화하고 최하위 20% 계층 출신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학의 입학처 부학장(Vice President for Enrollment at Willamette University)인 Robin Brown은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고등교육 시스템이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 기타 인종 및 소수민족 등 학생 구성의 다양화 노력, 온라인 입학업무 처리, 시험성적보다 잠재적 능력을 발굴하기 위해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는 종합적 평가(hollistic review)가 규모가 큰 대학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는 것 등을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회·경제적 다양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교육 및 직업의 기회균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보조(need-based aid)를 줄이고 우수 학생 지원(merit aid)에만 치중하는 것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진학기회를 줄이고 선택을 제약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Robin Brown은 대학들이 합격률을

낮춰 경쟁률이 높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지원자 수를 늘리거나 등록 가능성이 적어보이는 학생들은 합격시키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며, 특히 경쟁률이 치열한 대학들이 우수 학생들의 등록을 높이기 위해 수시모집(early-decision and early-action)²⁾을 늘리는 것은 가뜩이나 미스터리로 수놓아진 입학 절차에 대해 학생들을 더욱 혼돈스럽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교육·경제 국립센터의 선임연구원인 Anthony Carnevale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학업 우수성(academic merit)에 기초한 입학 허가 방식이 장점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만약 초·중등교육에서 개인의 잠재적 능력(innate abilities)을 개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한다면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대학입학절차는 공정할지 모르지만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중·고교에서 기회에 있어 균등하지 못하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시험성적이나 고교 성적과 같은 점수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인종이나 계층 간 기회 불공정 문제를 흐리게 할 우려(a way of laundering unfair racial and class barriers to opportunities)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Anthony Carnevale은 입학경쟁이 치열한 대학들에서 인종 간 다양하지 못한 구성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들로

2) 정시모집 전 우수 학생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시행했던 특차 모집제나 현행 수시 모집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early-decision의 경우 일단 지원한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으면 그 대학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반해, early-action의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적 등록의무는 없다.

“

미국의 경우, 특히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대학진학 비율을 끌어 올리려는 그들의 노력이 대학진학을 80%를 넘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소위 일류대학에서 교육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출신 학생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대학들은 특권이나 사회적 신분의 단순한 재생산 기제라는 비판을 불식하고, 효율적인 사회적 인력 충원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

구성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한다. 상위 146개 우수 대학 재학생의 3%만이 사회·경제적 계층을 4등분할 때 맨 하위 25%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기대치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한 배려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버지니아대학교 교수(교육대학 학장)인 David Breneman은 입학허가 정책을 둘러싼 대부분의 논쟁이 소수의 우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한정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공 정책 관점에서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듀크대학으로 진학하든 혹은 프린스턴대학이나 버지니아대학으로 진학하든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어떻게 하든 우수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변경될 여지는 매우 적다고 한다. 우수 대학들이 전국 단위에서 보다 폭넓게 모집하고, 다양한 인종 및 소수민족,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David Breneman은 미국의 제도는 대학진

학 준비와 학비지원에 약점이 있다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졸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에서 많은 수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통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까지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키지도 못하며, 인상되는 대학 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률이 치열한 우수 대학들부터 인식을 전환하여 대학진학 기회 및 학비조달 문제를 입학허가제도의 중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The Atlantic Monthly』지 특파원인 James Fallows는 대학 입학 허가를 투입과 산출과정으로 분류해서 장점을 제시한다. 투입과정에서 볼 때, 안절부절못하는 학부모를 제외하고 대부분 고등학교의 카운슬러나 대학의 입학관련 직원들은 매우 책임감있게 일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접해본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인도적이고 학생 복지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산출 측면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학 선택권이 보장되며, 대부분의 대학들 역시 우수 학생 선발

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James Fallows는 미국 제도에 있어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학생들을 어떻게 적정 대학에 매치시키느냐는 의미보다 주로 신분획득 경쟁(a status competition)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되며, 초·중·고교부터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져 교육과정 운영이 왜곡되고, 특히 우수 고교의 경우 우수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단계로 전략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쟁률이 높은 우수 대학(selective colleges)이 사회적 신분 이동 및 기회제공을 위한 수단이기보다 단지 사회·경제적 특권의 반영에 그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초·중등 교육이나 미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은 고등교육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위원회 Gaston Caperton 회장은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입학업무 담당직원들의 높은 전문성(the talent and commitment)을 들고 있다. 학장이나 입학업무 책임자들은 학생들의 잠재력(student potential)에 대해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학업무 담당자들은 각 지원자들과 해당 학교의 사명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기초하여 입학허가 결정을 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공정하고 전문성있게 일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문제점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비지원과 대학입학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위원회는 2001학년도에 대학지원 안내를 위한 기구를 만들

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SAT 응시료를 면제하고,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의 SAT 시험 준비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Gaston Caperton는 고등학교 성적의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대학진학을 위해 SAT를 치르는 학생들의 40%가 'A'를 맞는 실정이고 51%가 학급 순위 20% 이내에 들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시험이 입학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정적 입학허가 기준(the sole criterion for admission)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좀더 균등한 대학 입학 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턴십이나 교사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고등학교들과 유기적 협력체제(meaningful bonds)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캠퍼스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을 개발하며, 고등학교를 돕도록 교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II. 정책적 시사점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장점을 요약하면 학생들에게 매우 다양한 선택 기회가 제공되며 직원들이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효율적인 선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성적 이외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신입생 집단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

고교 교육정상화와 대학의 학생선발권의 문제는 우리만 고민하는 사항은 아니며, 배타적 가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대학들은 좀더 균등한 대학입학 전 교육시스템(a more equal precollege education system)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하위 계층 혹은 소수 민족이나 인종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전문가들이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은 흥미롭게도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과 매우 유사하다.

대학에서 지원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SAT 성적과 같은 표준화된 시험 성적 위주의 전형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그 원인을 고등학교 성적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중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과 같이 학교 성적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에서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특히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소수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여 전체적인 대학진학 비율을 끌어 올리려는 그들의 노력이 대학진학률 80%를 넘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심각

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소위 일류대학에서 교육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출신 학생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대학들은 특권이나 사회적 신분의 단순한 재생산 기계라는 비판을 불식하고, 효율적인 사회적 인력 충원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005학년도에 도입된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비롯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등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에서 대학 구성원 다양화 지표 등을 공시하도록 대학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학들의 등록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주립대학에 대한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어 따라 이들 대학의 등록금이 크게 올라 학비 조달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장학금에 대

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유인 및 보상 측면을 넘어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명 사립대학들의 경우, 실제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적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혜 비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미국에서도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기관화 문제, 우수 학생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수시모집 제도, 학교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부유 계층 및 동문 자녀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교 교육정상화와 대학의 학생선발권의 문제는 우리만 고민하는 사항은 아니며, 배타적 가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서 입학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8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은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고교 간 협력체제 구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Gaston Caperton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학들은 좀더 균등한 대학입학 전 교육시스템(a more equal precollege education system)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한석수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The University of Iowa)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대학 College of Education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교육부 대학지원국 학술지원팀장, 대학지원국 학술학사지원과장, 인적자원관리국 학사지원과장, 정책홍보관리실 기획법무담당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공주대학교 객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